

구 가나자와 육군 병기지창 병기고: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의 역사적인 벽돌건물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은 20세기 초에 구 육군의 병기고로 사용되었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길고 큰 건물 3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3채의 건물은 각각 1909년, 1913년, 1914년에 지어진 것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군사건축물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극히 단기간에 건설된 희소한 벽돌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20세기 초반의 국가 건축은 서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년 이상 쇄국정책을 유지했던 일본은 1854년에 군사력에서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미국 함대의 내항으로 인해 강제로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들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깨달은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건축을 포함한 서양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양의 건축가들을 초빙했고, 일본 건축가들 역시 독자적으로 서양건축물의 외관 등을 모방해 건축물을 세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건축을 연상시키는 붉은벽돌 건물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도쿄역 건설을 비롯한 관공서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산 벽돌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서 벽돌은 적합한 건축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벽돌 사용은 수십 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진행된 개수 프로젝트를 통해 3채의 붉은벽돌 건물 외관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모두 2층 구조로 길이는 약 90m에 이르며, 가파른 경사의 기와지붕을 가진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용마루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서양식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긴 면은 좌우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이중문 구조의 정문 현관은 양쪽이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 양쪽에는 아치형 창문과 견고한 불임기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중후한 검은색 철격자와 튼튼한 철제 문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이 건물 내부에 위험성과 가치를 동시에 지닌 포탄과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철제 문들은 복원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모두 제거된 상태였으나, 복원팀은 제3동 다락방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한 쌍의 철제 문을 참고로 이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개수공사에서는 내진성을 강화하고 소장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기 내부구조의 많은 부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 한편으로 의도적으로 보존한 것도 있습니다. 제3동에서는 천장의 서까래 위까지 볼 수 있어 과거 무거운 무기를 2층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제 2 동의 로비에는 벽돌로 만든 말뚝과 나무로 된 지지용 들보 등 당시 건물의 지지구조 일부가 남아 있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

이 병기고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한때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에서 사용했으나, 1972 년에 이시카와현이 관리하게 되었으며, 1986 년에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으로 개관했습니다. 현재 제 3 동 건물은 박물관 전시실과 사무실 그리고 무가저택의 보물을 전시하는 가가혼다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1990 년에 개최된 특별전 ‘매혹의 일본 바다 문화’에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고고 자료 30 점을 대여한 것을 계기로 한국 박물관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1 년에는 한국 국립전주박물관과 자매관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친선,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가나자와 육군 병기고는 1990 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